

제4권 (4단원 :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

(제18과) 베다니의 마리아

· 본문 : 요한복음 12:1-8

· 요절 :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

· 찬송 : 349장(새찬송가 214장), 351장(새찬송가 321장)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분주하였고, 나사로는 손님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순식간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화를 내며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1. 마리아는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또 곡식은 처음 추수한 것을, 실과는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그토록 고귀하고 아름다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삼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는 결코 그녀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향유는 유대 관습에 따라서 그녀가 결혼 지참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소중히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을 뿐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마리아를 포함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본받아 가진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것처럼 기쁘게 받으신 것은 단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드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자의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털을 풀어서 향유에 젖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마치 노예가 상전을 받들어 섬기는 것 이상으로 그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더욱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곧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어떠한 자세로써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섬김받기를 더 좋아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손수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남김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린 사실을 알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때 가롯 유다가 분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이 말은 그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궤를 맡은 자로서 향유 판 돈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그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막 14:8,9)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노라면 때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그리 마음 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받아주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념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귀한 것은, 그녀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되 지극한 겸손으로 섬긴 데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마리아는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섬길 기회가 항상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바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